

식품원료 국산사용 고작 31.3%

인삼·수박 등 22종 90% 이상... 버터·대두 등 43종 20% 이하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농축 수산물 원료 중 국산의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식품제조업체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원료는 1565만으로 이중 국산 원료 비중이 31.3%로 나타났다.

국산원료 사용 비중은 2012년 23.7%에 불과했고, 2013년 31.2%로 첫 30%를 넘었으나, 2014년에는 31.3%로 크게 늘지 않았다. 2014년엔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에 그쳐 2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총 원료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국산원료 농산물의 사용량 자체는 해마다 전년보다 4% 이상 늘었다.

국산 원료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인삼 수박 감귤 매실 원유 배연유 양파, 포도 무, 생강 등 22종이다. 이들 품목의 국산 사용량은 약 343만으로 전체 국산 사용량의 70% 이하인 품목은 버터 올리브유, 대두, 참기름, 옥수수전분, 명태, 소맥(밀), 타피오카, 원당, 백설탕, 커피원두 등 모두 43종이다.

국산 원료를 구매하는 이유는 원산지에 민감한 재료로서(51.2%, 1+2순위)

위) 국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달이 쉬워서'(41.2%), '선한 원재료가 필요해서'(32.6%)라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 원료 구매 이유는 '원료의 가격경쟁력'(75.9%, 1+2순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국내산은 대량 납품을 받을 수 없어서'(19.2%),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원료라서'(18.7%)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 실태 및 원료 조달 경로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당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안진수 기자



험난한 검찰 출석 옥시레킷벤치(옥시)의 존 리 전 대표가 기습기 살포제 사망 사건에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영 감시장치 도입”

더민주, 구조조정 중인 거제조선소 찾아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 경영감시장치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동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회사 종사자가 경영 상태를 같이(점검)하는 장치가 되어야 우리나라도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당 자체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우리 당에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운영의 가장 문제는 기업 경영 감시체제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

이라며 “경제민주화 최종단계로 가면 기업에 있어서 노사간 감시체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형 국영기업이나 대우조선 같이 만병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는 경영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중국에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조선산업은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므로 챙겨야 된다”며 “우리나라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소한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임실코아루 더 베스트’ 아파트 이달중 분양

이도리에 총 230세대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중 임실군 민들의 큰 호응속에 임실 코아루 더 베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이 분양하는 임실 코아루 더 베스트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61-1번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18층 41동으로 전용면적 65㎡ 170세대, 81㎡ 2세대, 84㎡ 58세대 등 총 230세대 규모다.

이 단지는 임실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명품 브랜드 아파트로 임실읍 도시 인구 증가 유인 정책으로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시대에 맞는 주거생활 시스템으로 구축된 새 아파트에 목말라 있던 임실군민 수요자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실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최고 층 브랜드 아파트 임실 코아루 더 베스트는 교통여건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소비자들의 큰 인기가 기대되고 있다.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IC를 이용하면 남원과 전주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로 약 5분 거리에는 임실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차량으로 5분 거리에는 임실역이 위치하여 광역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또한 임실군청과 우체국, 경찰서, 법원 등의 관공서가 인접해 편리하고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가 가까워 학부모가 인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는 거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등의 문화체육시설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의 쇼핑시설도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태하천으로 새로이 조성된 임실천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 숲길을 통해 입주자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소기업단체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법 제정의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진수 기자

농어촌공 금강사업단, 감사패 받아

회현면 농민들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단장 박종만)은 농업인들의 영농편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 농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군산시 회현면 지경지구 경지재정리사업지구 내 농업인 대표 정상범의 주민들은 박종만 사업단장과 이철욱 공감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금강사업단은 16년 금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 일대 지경지구를 포함하여 총 8지구 560ha의 경지재정리사업을 추진, 다음달 30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좁은 농로와 노후화된

용·배수로로 인해 대형화된 농기계장비의 이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용수공급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배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경지재정리사업을 통해 농로를 확장하고 용·배수로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영농편익을 크게 개선시키는 물론 침수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 지역 농업인들은 “금강사업단이 지역농업인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하고 철저한 시공관리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매일유업 애플루트 ‘카카오스토리’ 오픈

매일유업의 유아식 전문 브랜드 애플루트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로 애플루트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했다. 23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처음 유아를 시작하며 걱정과 고민이 많은 엄마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단독 브랜드 계정을 오픈했다.

애플루트 카카오스토리에서는 모유 분유 등의 유아식 정보, 육아고민상담, 육아꿀팁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고객 이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스토리에 유아식이나 아기용품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남기면 매일유업 ‘매일아시아모유연구소’에서 직접 답변하는 등 엄마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 예정이다.

아울러 애플루트는 카카오스토리 오픈을 기념해 오는 6월22일까지 애플루트 소식을 구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애플루트 카카오스토리의 소식방기를 하고 댓글을 남긴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매일유업 유음료, 초콜릿 등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6월 29일 애플루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진수 기자

응급피임약 전문 분류 재검토해야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999년 프랑스를 필두로 현재 캐나다, 독일, 아테리,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대부분 의사선진국의 경우 응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013년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응급피임제에 대한 구입연령 제한(17세)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